



〈특집 :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이후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변화〉

■ 농가 입장

배합사료에 대한 항생제 첨가 금지 이후 농장에 미치는 영향 및 변화



이 재 춘
에이스중돈 대표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는 성장촉진 효과와 질병예방의 목적으로 꽤나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오남용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성과 교차내성 문제와 같은 보건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첨가를 안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첨가가 금지 되었다.

1. 항생제 첨가 금지에 대한 걱정

그동안 우리나라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축산업에 사용되는 항생제사용량이 매우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내 축산업의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항생제에 대한 규제를 해 오다가 최

종적으로 배합사료에 대한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게 되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축산업계에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질병예방적인 측면에서 첨가되던 항생제는 이미 단계적으로 첨가가 금지되어왔었기 때문에 2011년 7월 1일 모든 항생제 첨가 금지에 대한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성장촉진목적으로 사용되어진 항생제들이 빠짐으로 인한 사료효율 저하와 성장 둔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인데 이로 인해 10~15% 정도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장이 늦어 축사가 밀사가 되면서 질병발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농장사육 단계에서 치료목적의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으로 농장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생제



대체제, 즉 천연식물추출물, 미생물제제, 면역증강제에 대한 사용비중을 높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고 현재 많은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대로 효능이 검증된 제품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항생제 대체제들이 오히려 항생제보다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약품비의 증가로 생산비 상승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2. 실제 농가에서의 대처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 되면서 농가에 도착되는 각종 교육 홍보자료를 보면 다음 내용과 같은 농장에서의 대비사항들을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농장 차단 방역 : 출입문 차단기 설치, 울타리 설치, 물품반입창고 운영, 외부 사료창고 운영, 출하대 외부설치, 농장 출입자용 샤워장 설치, 사료, 종돈 구입처의 단순화 등
-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 : 사료통 청결, 급수기 청결, 건식 사료통 이용, 환기 보완, 돈사내 온습도 관리, 밀사금지, 올인올아웃 등
- 사양관리 개선 : 이유 일령 28일로 조정, 후보돈의 격리돈사 운영, 그룹관리, 적정한 교배시 체중 유지 등...

또한 농가의 항생제 오남용을 자제하도

록 주문하였고, 약품의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약품사용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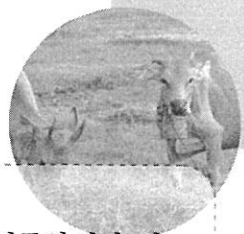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항생제 무첨가만을 위해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어찌보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저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HACCP 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준비하는 경우 또한, 축산업 허가제관련 준비를 하는 농장의 경우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장에서는 항생제 무첨가 이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걱정은 되었지만 그 것을 해결하는 역할은 결국 사료회사의 몫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항생제 무 첨가 이후 농장의 변화

사실 배합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가뜰이나 소모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농장이 많은 현실에서 농장주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2011년 7월 이후 지금 까지 국내 양돈장의 생산성은 모든 두수 대비 사상 최대의 출하량이 예측 된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향상이 되고 있다.

실제 본인의 농장도 별도로 사료에 항생제 투약을 하지 않고 무항생제 인증까지 받으며 최근 까지 지켜 본 결과 오히려 항생



제를 무분별 하게 사용 하던 때 보다 돈군이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돈군의 건강도 향상이라는 측면은 FMD살처분 이 후 재 입식을 통해 질병의 청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항생제만으로 질병에 대응을 하던 과거에는 오히려 소모성질병의 피해가 많았음을 상기 해 볼 때 이제 농가에서도 항생제에 의존하는 관리방식을 탈피해서 농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 5년 사이 문제 되었던 국내 양돈 질병을 보면 PRRS, PED, PCV-2(썬코) 등의 바이러스가 원인체인 질병발생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이러한 원인체, 즉 바이러스는 사실 직접적으로 항생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2차 감염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농장에서 질병 예방측면을 본다면 항생제 사용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관리 즉, 차단방역, 백신접종, 밀사, 환기, 청결한 환경 유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농장에서도 무항생제 인증과 함께 항생제를 사료 첨가하여 실시하는 돈군 단위 투약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과거 정기적으로 항생제를 첨가하면서 관

리를 할 때와 비교했을 때 질병증상이나 성장률 등에서 특이하게 부정적인 면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간혹 살모넬라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가 관찰이 되어 개체별 도태 처리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농장에서도 개선 노력을 해야 겠지만 사료업체에서도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료 품질 검증시스템 도입을 하는 등, 함께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제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농장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여 질병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부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한다면 출하돈에 항생제가 잔류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농장에서의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전망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된다.

배합사료에 대한 항생제 첨가 금지는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및 사육환경 개선등의 노력과 맞물려 현재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한, 늘어나는 사육단계 HACCP인증과 함께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의 보편화를 이끌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축산물이 시스템적으로도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